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참가!

동아시아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 초일류 강사진의 다채로운 커리큘럼!

일본의 옛 수도 나라(奈良) 전체가 캠퍼스!



2012

NARASIA 未来塾  
NARASIA SCHOOL / NARASIA 未来塾研社会 / NARASIA 미래아카데미



2012 제2회 동아시아·서머스쿨  
("NARASIA미래학원 2012") 참가자 모집!

모집  
기간

2012년 4월 2일 ~ 5월 31일





## 안내인사

지금 동아시아 지역은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규모로 성장하고 있어, 서로의 해외무역과 교육연구분야, 사회보장대책을 위한 연계와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시책,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구조성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또, 국제화의 진행에 따라 이전에는 국내문제였던 것이 지금은 한 국내의 문제로는 그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는 등, 시대는 커다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 이 지역의 미래를 짚어질 인재는 자국을 알고 이해하는 것과 같이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와 문화, 정치경제, 사회사정 등의 교양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고 실제적인 대화를 통하여 상호교류의 기회를 얻는 것이 중요하며, 이 지역의 일체감을 높여 상호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책을 검증하고 실행하는 의식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동아시아의 세계경제와 정치, 지구환경에 대한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들은 나라현이 가지는 역사전, 문화적 및 자연적 특색을 살려 'NARASIA 미래학원' 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동아시아의 미래를 짚어질 인재를 육성하는 시책을 전개하고, 그 성과를 일본과 세계로 발신해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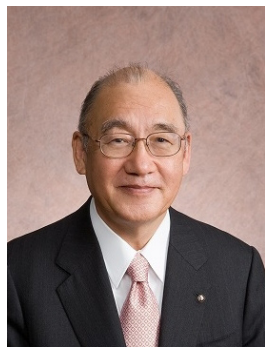


제 79 대 내각총리대신  
NARASIA 미래학원 명예학원장  
호소카와 모리히로

장래의 동아시아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시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인재육성이 필요하며, 동아시아의 젊은 세대가 함께 논의하고 생각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의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라는 지역은 일본이 국가조성을 진행한 6세기부터 8세기에 수도 ‘헤이조쿄’를 둔 곳이며 중국과 한반도로부터 기술과 문화가 전해진 땅입니다.

나라현이 이러한 ‘역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개최하는 ‘NARASIA 미래학원’에서 젊은이들이 아시아의 현재를 배우고 함께 미래를 토론하면서 성장할 것을 저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라현 지사  
NARASIA 미래학원 학원장  
아라이 쇼고

국제화사회에서 동아시아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차세대 인재육성과 교류를 목적으로 나라현이 개최하는 ‘동아시아 서머스쿨 ‘NARASIA 미래학원 2012’ 이 올 여름 두 번째를 맞이합니다.

본 스쿨의 커리큘럼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역사문화, 환경과 의료 등 각 분야에서 강사진의 강의와 문화재, 첨단기술에 접할 수 있는 연수, 수강생의 리포트 작성과 성과발표 등 충실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동아시아 서머스쿨 ‘NARASIA 미래학원 2012’에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많은 젊은이들이 참가해 지적인 교류를 활발히 하면서 상호문화에 대한 존경심을 생성하고 장래적으로 동아시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되어 줄 것을 기원합니다.

## 개최개요

- (1) 실시시기 : 2012년 7월 23일(월) ~ 8월 12일(일) 21일간
- (2) 실시장소 : 나라시(중심회장: 나라현립대학) 기타
- (3) 명 칭 : NARASIA(나라시아) 미래학원 2012
- (4) 주 최 : 나라현
- (5) 후 원 : 외무성(신청 중), 재단법인 자치체국제화협회
- (6) 모집인원수 : 45명
- (7) 참가자격 : 본 연수의 수강자는 아래의 모든 요건에 부합되는 자에 한합니다.
  - ① 일본어로 진행되는 대학 수준의 강의 청강과 토론, 리포트 작성 등이 가능할 것
  - ② ‘동아시아지방정부회합’의 회원정부와 관련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서 지방정부로부터 추천 받은 자일 것
  - ③ 연수의 모든 일정에 참가 가능할 것
- (8) 참가비용 : 강강의와 시찰 및 체험학습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간 중의 숙박비, 식비는 주최자인 나라현이 부담하지만, 아래 사항에 관해서는 각자 혹은 지방정부에서 부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대회장까지(해외에서 참가하는 수강생은 간사이국제공항까지)의 왕복여비와 식비, 숙박비 등
  - ② 해외에서 참가하는 수강생은 사전에 해외여행상해보험 등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③ 개인적인 음료 및 식사, 교통비, 여행선물 구입비 등은 각가자 부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 (9) 기 타 : ① 연수기간 중의 도난, 분실, 사고 등에 관해서는 주최측인 나라현은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수강자 여러분은 각 강의가 끝난 후에 리포트를 제출해야 하며, 최종일까지 3주간의 학습성과를 정리하여 발표해야 합니다. 이를 관계자가 열람하여 후에 공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커리큘럼의 구성 ※예고 없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 점 양해바랍니다.

지구적 과제해결을 이끌어갈 미래의 리더를 목표로 하는 여러분과 함께 아래의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커리큘럼을 전개합니다.

### 【학습목표】 동아시아의 ‘공통성’ 과 ‘관계성’ 에 대한 이해

- (1) 【강의】 (90분×18회)  
동아시아의 정신성과 역사, 문화, 정치 및 경제, 환경, 과학기술 등 각 분야에 정통한 초일류 전문가가 강의를 말합니다.
- (2) 【토론】 (45분×18회)  
각 강의 종료 후, 강사와의 질의응답과 의견교환을 펼치면서 이해를 깊이 하는 토론을 합니다.
- (3) 【시찰·체험학습】 (총 3일)  
나라현 내 전문기관 등의 협력을 받으면서 실제 현장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본의 옛 수도인 나라의 매력도 전해 드립니다.
- (4) 【특별 세션】 (총 2회)  
다분야 및 이분야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기법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지도 아래 실습을 섞어가면서 체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5) 【워크숍】 (총 2회)  
성과발표를 위해 에디토리얼 디자인과 프레젠테이션 등을 테마로 개최합니다.
- (6) 【성과발표】  
3주 동안의 커리큘럼을 통해 얻은 성과를 연구논문으로 정리해 발표합니다.



시찰 및 체험학습: 동탑 수리공사 현장 (7/27)

## 커리큘럼 일정

7/23 (월)	집합			오리엔테이션		개강식
7/24 (화)	대화 프로그램					
7/25 (수)	강의	토론	점심휴식	강의	토론	회고
7/26 (목)	강의	토론	점심휴식	강의	토론	회고
7/27 (금)	시찰, 체험학습(야쿠시지절 동탑 수리공사 현장학습 등)					
7/28 (토)	강의	토론	점심휴식	강의	토론	회고
7/29 (일)	자습(휴양일)					
7/30 (월)	강의	토론	점심휴식	강의	토론	회고
7/31 (화)	강의	토론	점심휴식	강의	토론	회고
8/1 (수)	특별 세션		점심휴식	워크샵		
8/2 (목)	강의	토론	점심휴식	강의	토론	회고
8/3 (금)	강의	토론	점심휴식	강의	토론	회고
8/4 (토)	시찰, 체험학습					
8/5 (일)	자습(휴양일)					
8/6 (월)	강의	토론	점심휴식	강의	토론	회고
8/7 (화)	강의	토론	점심휴식	강의	토론	회고
8/8 (수)	시찰, 체험학습					
8/9 (목)	특별 세션		점심휴식	워크샵		
8/10 (금)	성과발표제작					
8/11 (토)	성과발표			수료식		수료파티
8/12 (일)	해산					

※예고 없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 점 양해바랍니다.

## 참가신청에 관해

하기 제출서류를 갖추어 마감일까지 나라현 동아시아 연휴과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이메일에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응모서류 접수 후, 나라현 동아시아 연휴과에서 수령확인 연락을 드립니다.

### (1) 모집기간

2012년 4월 2일 (월) ~ 5월 31일 (목) 선착순 (정원 45명에 달하는 대로 접수종료합니다)

### (2) 제출서류

- ① 지방정부의 참가추천서 (별도 양식) ★ 각 지방정부의 추천자는 2명 이내로 합니다
- ② 참가자 응모용지 (별도 양식)

### (3) 우편으로 응모할 경우의 주의사항

마감일 당일의 소인까지 유효합니다.

### (4) 이메일로 응모할 경우의 주의사항

- ① 모든 서류는 pdf 혹은 엑셀형식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② 나라현 동아시아 연휴과에서 수령 후 3일 이내에 이메일로 수령확인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 ③ 상기 기간 내에 수령확인 연락이 없을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 (5) 서류송부처, 문의처

〒630-8501 奈良市登大路町 30 奈良県東アジア連携課

(우편번호 630-8501 나라시 노보리오지초 30 나라현 동아시아 연휴과)

TEL : 0742-27-5821 FAX : 0742-22-1260 E-mail : narasia-school@office.pref.nara.lg.jp

제출서류는 선고 결과에 상관없이 반환하지 않으므로 이 점 양해바랍니다.

### (6) 모집인원수

정원 45명에 달하는 대로 접수종료합니다. 단, 수강생의 국가 등의 균형을 고려해 선고하므로 이 점 양해바랍니다.

## 제출응모서류의 취급에 관해

### 【개인정보의 이용목】

수집한 응모자의 개인정보는 아래 목적에 이용됩니다.

당과는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본 이용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응모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 당과가 수강생을 선고하기 위해.
- ‘NARASIA 미래학원 2012’에 관한 각종 정보제공과 연락 등을 위해.
- 응모자에 관한 통계, 자료분석을 위해.

###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해】

당과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당과의 책임하에 적절히 관리하며, 연수의 수강에 달하지 못했을 경우는 당과의 책임하에 적절히 폐기합니다. 이 경우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결정의 통지에 관해

2012년 6월 중순을 목표로 참가결정통지 및 수강표를 송부하겠습니다.

※ 연수실시에 지장이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 수강이 결정된 분은 참가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NARASIA 미래학원’의 강사분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외에도 각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 【한자문화】



#### 아쓰지 테쓰지 (교토대학대학원 교수)

문자를 중심으로 한 중국문화사를 전공, 주로 갑골문자 등 고대문자학의 지식과 컴퓨터 및 워드프로세서 등 현대기술을 매개로 한 한자를 연구. 국어심의회의 제 22기 위원으로《표의 한자 자체표》의 작성을 담당. 현재는 문화심의회 국어전문부회 위원으로 상용한자표의 재검토에 참가 중. 주요 저서로서는 《한자이야기》(이와나미쇼텐), 《터부의 한자학》, 《한자를 즐기다》(모두 코단샤 현대신서), 《전후 일본 한자사》(신쵸 선서) 등.

### 【지역행정】



#### 아라이 쇼고 (나라현 지사)

도쿄대학 법학부 졸업, 1968년 운수성 입성, 1972년 미국 시라큐스대학교 맥스웰 행정대학원 졸업, 동 대학 행정석사 취득. OECD 일본정부 대표부 참사관, 운수성 관광부장, 운수성 철도국 심의관, 운수성 자동차교통국장 등을 역임. 1999년 해상보안청 장관, 2001년 참의원 의원, 외무대신 정무관, 참의원 문교과학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5년 5월 나라현 지사로 취임.

### 【경제】



#### 사토 세이치로 (주식회사 다이와연구소 경제조사부 주임연구원)

1958년 야마가타 출생. 히토즈바시대학 경제학부 졸업 후, 교와은행(현 리소나은행) 아자부지점에 입행. 그 후, 아츠타지점을 거쳐 경제기획청 조사국 해외조사부(프랑스 경제, 유럽통합), 교와은행(현 리소나은행) 증권부(일본국채 운용), 90년에 다이와연구소 경제조사부에 입사(소련 경제). 모스크바국제관계대학 유학(러시아어), JICA 컨설턴트(인도네시아의 장기경제계획 책정지원), JICA 컨설턴트(몽골의 공업화 지원)를 거쳐 현직.

### 【역사】



#### 센다 미노루 (나라현립 도서관정보관 관장)

1942년 출생. 교토대학 문학부 사학과(인문지리학) 졸업, 동 대학원 박사과정(지리학 전공)을 거쳐 오테몬가쿠인대학 조교수, 나라여자대학 교수. 95년부터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교수에 취임, 2005년 나라현립 도서관정보관 초대 관장으로 취임, 2008년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를 퇴임하고, 동 명예교수. 문학박사. 1994년도 하마다세이료상 수상. 2005년도에는 일본지리학회 우수상 수상. 저서에 《야마타이 국과 근대일본》(NHK 출판), 《헤이조쿄의 풍경》(분에이도), 《아스카-물의 왕조-》(쥬오코론신샤), 《지구본의 사회사》(나카니시야 출판), 《고대의 풍경으로》(도호 출판), 《헤이조쿄 천도》(쥬오코론신샤), 《아스카의 패자-스이코조와 사이메이조의 시대》(분에이도), 《세밀한 문명「일본」》(NTT 출판), 감수한 서적으로는 《헤이조쿄(벳사츠 타이요)》(헤이본샤), 《고지키(벳사츠 타이요)》(헤이본샤), 《도설 지도와 개요로 알 수 있는 야마타이국》(세이슌 출판사), 《도설 고대 일본의 원류를 찾다! 쇼토쿠 태자》(세이슌 출판사) 등 다수.



## 【환경】



**다나카 마사루 (교토대학 명예교수, 재단법인 국제고등연구소 주임연구위원)**

40 수년간에 걸쳐 해수어 치어의 생태와 생리에 관한 연구에 종사. 연구를 통해 치어의 생육장소로 물가가 불가결하다는 것이 판명. 동시에 물가는 강을 통해 숲의 다양한 기능으로 유지되어 온 것임을 알게 됨. 치어를 위해 《삼리해연환학》을 2003 년에 제창. 일본의 연안환경 / 어업의 ‘시금석’ 인 아리아케해와 산리쿠의 바다의 소생에 관한 연구와 주민운동의 융합으로 그 소생에 진력.

## 【건축】



**나이토 히로시 (나이토 히로시 건축설계사무소 대표, 도쿄대학 명예교수)**

1950 년 가나가와현 출생. 와세다대학 이공학부 건축학과, 페르난드 이케라스 건축설계사무소 (스페인 마드리드), 기쿠타케기요노리 건축설계사무소를 거쳐 1981 년에 나이토히로시 건축설계사무소를 설립. 2007 년 현재 굿디자인상 심사위원장. 주요 건축작품으로서는 바다의 박물관 (미에현), 아즈미노 치히로 미술관 (나가노현), 마키노도미타로 기념관 (고치현), JR 휴가시역 (미야자키현) 등. 2004 년 《건축적 사고의 미래》 오코쿠샤, 2006 년 《건토축목 1》, 《건토축목 2》 가지마출판회, 2008 년 《구조디자인 강의》 오코쿠샤 등.

## 【교육】



**나카자와 시즈오 (나라교육대학 지속발전·문화유산교육연구센터 전임강사)**

1960 년 오사카시 출생. 리쓰메이칸대학 사학과 졸업, 나라교육대학대학원 수료. 공립초등학교 교원, 나라시 교육위원회 지도주사를 거쳐 현직. 세계유산과 문화유산을 통한 ESD(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의 학습내용 연구 및 비고츠키의 구성주의를 원용한 지도방법의 실천적 연구에 진력.

## 【신화】



**마쓰무라 가즈오 (와코대학 표현학부 교수)**

1953 년 치바현 출생. 비교신화학, 종교사학 전공.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omparative Mythology, director. 일본신화를 동아시아, 유라시아, 환태평양의 다른 신화와 비교하는 것 외에 신화연구의 역사에 도 관심. 저서에는 《신화학 강의》 가도카와서점, 《여신의 신화학》 헤이본샤, 《세계신화사전》 가도카와서점 (공저), 《이 세상 최초의 이야기》 하쿠스이샤, 《신화사고 I》 겐소샤 등.

## 【문화·관광·교류산업】



**후쿠이 쇼헤이 (주식회사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연구소 대표이사사장)**

1946 년 돗토리현 출생. 기업, 도시, 행정의 경영전략으로 커뮤니케이션 아이덴티티 계획의 중요성을 제창하여 전략개발 플래닝부터 실천적 프로그램 개발까지 ‘Think & Do 탱크’를 전개. 2005 년에 개최된 21 세기 최초의 만국박람회 ‘사랑, 지구박람회’의 메인 프로듀서, 헤이조 천도 1300 년 기념사업의 메인 프로듀서를 역임. 현재는 올해 한국에서 개최되는 여수국제박람회 일본정부관의 종합 어드바이저로 활약 중.



## 【특별 세션】



### 마쓰오카 세이고 ( 편집공학연구소 소장 )

일본의 편집자, 저술가, 일본문화 연구가로 편집공학을 제창. 교토부 출신. 도쿄대학 객원교수, 데쓰카야마가쿠인대학 교수를 역임, 현재는 마쓰오카 세이고 사무소 대표, 편집공학연구소 소장, 이시스 편집학교 교장, 이사. 일본과 동아시아의 미래를 생각하는 위원회 간사장.

## 【산업】



### 마쓰타니 다카유키 ( 데즈카 프로덕션 사장 )

1944 년 요코하마 출생. 1967 년 주오대학 법학부 졸업. 만화잡지 편집자 시절 ( 지즈교노니혼샤 ) 데즈카 오사무를 담당한 후, 1973 년 4 월 데즈카 오사무의 매니저로 주식회사 데즈카 프로덕션에 입사. 1985 년 4 월 현재 동 프로덕션 대표이사사장. 칼라판 《철완 아톰》, 《블랙 잭》 등 다수의 TV 시리즈와 《불의 새》, 《정글 대제》 등 데즈카 오사무 원작의 극장판 애니메이션 영화도 프로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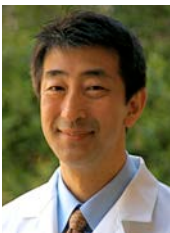
## 【과학기술】



### 마쓰모토 히로시 ( 교토대학 총장 )

1942 년 출생, 나라현 출신. 2002 년 교토대학 우주공학전과과학연구센터장, 2004 년 교토대학 생권연구소 소장, 2005 년 교토대학 이사 및 부학장을 거쳐 2008 년 현재 교토대학 총장. 전문분야는 우주 플라즈마 물리학, 우주전파공학, 우주에너지공학. 2006 년 Gagarin Medal, 문부과학대신표창과학기술상 수상, 2007 년 자수포장 수상, 2008 년에는 Booker Gold Medal 을 수상. 주요 저서에 《우주 개척과 컴퓨터》( 교리츠 출판 1986 년 ), 《교토의 우주학》( 근대과학사 2009 년 ), 《우주태양발전소》( 디스커버 투웬티원 2011 년 ) 등.

## 【동양의료】



### 와타나베 겐지 ( 게이오대학 의학부 한방의학센터 진료부장, 부교수 )

게이오대학 의학부 졸업. 도카이대학 의학부 번역학교실 조수, 미국 스탠포드대학 번역학교실 박사연구원, 미국 스탠포드종합연구소 분자세포학교실 박사연구원, 기타자토연구소 동양의학종합연구소, 게이오대학 의학부 한방의학센터장을 거쳐 현직. 일본내과학회 내과전문의, 미국내과학회 상급회원, 일본동양의학회 전문의 및 지도의, 일본동양의학회 이사, 화한의약학회 이사, 일본통합의료학회 이사, 재단법인 일본한방의학연구소 평의원, 일본의학교육학회 평의원, WHO temporary advisor

## 【문학】



### 왕 민 ( 호세이대학 교수 )

문화대혁명 후, 중국 전역의 대학교원 중에서 선출한 국비장학생으로 1982 년 미야기교육대학에 유학. 2000 년에 오차노미즈여자대학에서 인문과학박사학위를 취득. 도쿄세이토쿠대학 교수를 거쳐 현재 호세이대학 교수. 문화외교를 추진하는 총리간담회 위원, 국제문화교류추진회의 학식자회합위원 외에도 정부계 학식자위원회의 위원과 일본펜클럽 국제위원, 아사히신문 아시아회 간사 등을 역임. 일중문화관계를 중심으로 한 비교문화, 미야자와 겐지를 테마로 한 일본연구에 진력. 1990 년에 중국우수번역상, 2009 년에 문화장관 표창.



## 제 1 회 ‘NARASIA 미래학원’ (2011 년 ) 참가자들의 메시지

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비록 저는 나라의 시민이 아니지만 나라인에 지지 않을 만큼의 애정을 가지고 환영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나라에 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마치 저희들이 다시 나라에 돌아가는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앞으로 3 주일 동안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두 번 다시 경험하지 못할 당황스러움과 놀라움, 즐거움과 감동 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훌륭한 국제인이 되기 위해 부디 나라에서 경쾌한 한 발을 내딛기 바랍니다. 【중국 안후이성 외사관공실 쑹 루】



‘NARASIA 미래학원’은 학생이었던 저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국가간의 가교로서 한중일 3 국의 참가자들이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 세 나라의 우정이 한층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각자가 듣고 본고 느낀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 동광고담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추억도 많이 있지만 강의가 가장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 현대 세계를 분석하며, 장래를 전망하는 강의를 받았으며 향후 동아시아의 공동체, 그리고 공동체로서도 각국의 상호이해와 상호협력은 불가결합니다. 역사를 거울로 삼아 경험과 교훈을 잊지 않고 현재의 과제에 직면하며 함께 빛날 수 있는 미래를 맞이했으면 합니다. 과거의 동양은 매우 번영했으며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거의 번영했던 추억에 빠져 있는 것은 위험합니다. 또, 국제화시대에 단독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옛부터 긴밀한 교류를 이어 온 세 나라가 더욱 협력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양저우대학 4 학년 차이 썬】

3 주 동안 집중적으로 강의를 받고 테마토론을 한 후 필드워크로 발표하는 것은 일정적으로 좀 힘들기도 했지만 매우 충실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시야를 넓히고 지식을 얻어 한중일 3 개국의 공통점과 다른 점을 다시 한 번 인식했으며 자신에 대해서도 한층 더 깊이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공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한중일 세 나라의 친구가 많이 생겨져, 멋진 3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과 교류를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중국 안후이 쑤안학원 교원 황 칭칭】



많은 중국, 한국 분들과 교류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연수기간 동안 매일 양국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으며, 일본인과는 다른 다양한 사고방식이 있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연수기간 중에도 중국과 한국의 뉴스가 TV 에서 방송되었고 현재진행형으로 발생하는 국가간의 사건에 관해 각국의 분들과 의견교환이 가능했던 것이 매우 신선했습니다. 강의에 관해서는 모든 강의가 그 방면의 전문가분들에 의한 것이라 매우 훌륭했습니다. 강의 중의 한중일 세 나라의 공통되는 문화를 살려 교류를 깊여 간다는 내용이 인상 깊었습니다. 한자, 젓가락 등 공통의 문화를 가지며 그 형태가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전통적으로 계승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들과의 교류가 큰 재산이 되었습니다. 이 교류를 이번 연수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교류가 즉시 국가간의 우호관계로 이어지지 않는더라도 하나의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시하라시청 기획정책과 호리베 유이치】

작년 연수 때에는 동아시아에 관한 다양한 분야(한중일의 문화와 역사적 관계, 실크로드 종착점으로서의 나라의 위상 등)의 강의를 많이 듣고 폭넓은 지식을 흡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강의 후의 토론에서는 강의의 테마와 내용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용 중에는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한중일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의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참가자들의 열띤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강의 외에는 필드워크(작년에는 도쓰카와무라), 나라의 관광지 시찰, 일본의 문화체험 등이 일정에 짜여져 있어서 진지하게 얘기를 나누면서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과외시간에는 거의 매일 참가자들이 자주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나누어 밀도 있는 교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3주일 동안 계속된 공동생활로 참가자와 스태프들도 친해져서 행사가 끝났을 때에는 서운한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동아시아 여러 국가의 상호이해와 협력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간의 합의만이 아닌 'NARASIA 미래학원'과 같은 교류를 쌓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대학생, 대학원생만 참가했지만 장래에는 동아시아를 깊어질 젊은 세대(저도 그중의 한 명이지만)가 참가해 유대를 키워 간다면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임에 틀림 없습니다. 동아시아 교류의 적극적인 자세를 환영합니다. 【후쿠이현립대학 우치야마 레오】



‘미래학원’이라는 새로운 환경은 제 속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주었습니다. 해 보고 싶었던 것을 실현하거나 흥미의 대상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미래학원을 꼭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나라에서 한 경험을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예를 3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많은 강의와 세계유산의 견학을 통해 배운 일본의 역사, 문화, 관광지역조성에 관한 지식은 업무의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2. 나라에서 20일간 생활한 경험 덕분에 일본인과 거리감이 없어지고 이후에 업무상으로 만나는 일본인과의 교류가 더욱 원활하게 되었습니다.
3. 수강생과의 교류를 통해 각각의 의견이 다르며 생각도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업무시에도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강소성 렌윈강시청 왕 룡】

각 분야의 저명한 강사분들로부터 문화, 역사, 관광,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훌륭한 강의를 받고 나라의 아름다운 유적시찰과 필드워크 등을 체험한 제 인생의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잘 모르는 분야에 관해 열심히 공부한 것도 저에게는 정말로 즐거웠으며 ‘NARASIA 미래학원’에서 좋은 분들을 만나 다른 나라와의 차이를 알고 이해하게 되며 좋은 친구가 된 것이 가장 기쁜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국가발전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와 또, 세계와 함께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동아시아의 화합을 위한 인재가 되기 위해 자기자신을 더욱 성장시킬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도전하시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추억을 얻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 경주시청 김 연심】



일본어를 공부했던 것과 ‘NARASIA 미래학원’의 개최가 계기가 되어 처음으로 일본에 오게 되었습니다. 멋진 일본체재경험이었습니다. 나라에서 한중일 명사들의 수업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일본의 훌륭한 경치도 볼 수 있었고 외국 분들과 많은 교류도 할 수 있었던 매우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중국 산둥성 뚱잉시청 리 썬】

일본, 한국, 중국이라는 세 나라는 국가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과제도 안고 있으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3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작 이 세 나라의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받고 토론을 해 보니, 많은 공통부분을 느끼고 이 세 나라는 오랜 역사에 걸쳐 많은 교류를 하면서 서로 나라를 발전시켜 왔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으며, 나 자신의 한국과 중국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변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미래학원에 참가한 이후 조금씩이기는 하지만 한국어도 공부하고 있으며 향후 동아시아를 의식한 일을 해 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미래학원은 짧은 기간에 끝나지만 향후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라현 의료정책부 야마모토 나오키】



2012

**NARASIA 未来塾**

NARASIA SCHOOL / NARASIA 未来塾研讨会 / NARASIA 未来塾